

“제2의 테슬라 찾자”... 서학개미, 전기차 수혜株 베팅

해외주식 Click

美 전기차업체 초강세

테슬라, 경쟁사 부상에도 입지 굳건 루시드·리비안, 순매수 상위 자리 엔비디아 등 메타버스 관련주 인기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제2의 테슬라’를 찾아 전기차 투자를 이어갔지만 원픽은 여전히 테슬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메타버스(Metaverse·초월 가상세계) 수혜주 찾기도 분주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15~19일)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해외주식 1위 종목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다. 이 기간 6512만달러를 사들였다. 루시드, 리비안 등 다른 전기차 경쟁업체의 부상에도 굳건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는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각 소식에 연일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테슬라	6512만
2	루시드	6185만
3	리비안	4283만
4	엔비디아	3335만
5	마이크로소프트	1161만
6	라운드힐 볼 메타버스 ETF	788만
7	글로벌 X 차이나 전기차 ETF	720만
8	비자	684만
9	나눅스	627만
10	디렉시온 테일리 세미컨덕터볼 3X ETF	618만

기간 : 11월 15일~19일, 단위 : 달러

/한국예탁결제원

하락세를 보이던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먼트의 CEO 캐시 우드는 현재 1156달러 수준인 테슬라의 목표주가로 3000달러를 제시했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는 “테슬라 배터리는 경쟁사보다 3~4년 앞서 있다”며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장 먼

저 완전 자율주행에 성공한다면 5년 이내에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20~25%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2·3위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와 리비안이다. 지난주에만 각각 6185만달러, 4283만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며 주가가 급등했으나 최근 가파른 상승에 따

라 조정장을 맞았다. 지난 22일 기준 루시드와 리비안은 7~8% 나란히 하락 마감했다. 특히 리비안은 완성차 업체 포드가 자체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가 급락했다. 포드는 지난 2019년 리비안에 5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지분 12%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꼽힌다.

짐 팔리 포드 CEO는 “우리는 리비안에 투자하고 싶고 그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이 시점에서는 자사 차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버스 열풍도 여전했다. 엔비디아(3335만달러)는 지난주 순매수 1위에서 4위로 3계단 내려갔으며, 마이크로소프트(1161만달러)는 3위에서 4위로 1계단 내려갔다.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는 지난 8일(현지시간) ‘옵니버스(Omniverse)’를 공식 출시했다. 옵니버스는 산업, 제조, 디자인, 엔지니어링, 자율 주행 자동차, 로보틱스 등 모든 환경에서 메타버스를 개발하기 위한 오픈 플랫폼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 경쟁에

뛰어 들었다. 지난 3일 협업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사용자 대신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팀즈용 3D 아바타 신기능을 보여줬다. 3D 아바타는 3D 협업 공간을 지원하는 ‘팀즈용 메시(Mesh for Microsoft Teams)’의 일부로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어 6위에는 세계 최초로 상장한 메타버스 ETF가 새롭게 등장했다. 라운드힐 볼 메타버스 ETF(ROUNDHILL.BALL METAVERSE ETF)로 788만달러가 유입됐다. 라운드힐 볼 메타버스 ETF는 엔비디아, 로블록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글로벌 X 차이나 전기차 ETF(GLOBAL X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ETF·720만달러) ▲비자(684만달러) ▲나눅스(627만달러) ▲디렉시온 테일리 세미컨덕터볼 3X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ULL 3X ETF·618만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 10종목에 등장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ETF 수익률 천지차... 메타버스 😊 철강 😞

‘코덱스 메타버스액티브’ 수익률 13% 철강 관련 ETF, 수익률 최하위권

상장지수펀드(ETF)에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자금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메타버스와 철강 ETF가 엇갈린 모양새다.

이달 들어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4개를 ETF가 휩쓸었다.

하반기 약세장 진입과 신항구 시장의 방향성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해지자 ETF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익률은 엇갈리고 있다. 메타버스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지만 철강 ETF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3일 펀드평가사인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중 주간 수익률(11월 12~18일) 1위를 차지한 상품은 12.97% 수익률을 기록한 ‘KODEX XK-메타버스액티브’ ETF였다.

이어 ‘TIGERFn메타버스’ ETF(12.32%)와 ‘KODEXFn웹툰&드라

〈11월 3주차 ETF 수익률〉 /한국거래소ETF

순위	종목명	수익률
1	TIGER Fn 메타버스	9.7%
2	KODEX K-메타버스액티브	9.2%
3	KODEX Fn 웹툰&드라마	8.3%
4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8.1%

마’(10.44%), ‘KBSTARiSelect메타버스’(8.97%)가 뒤를 이었다.

ETF 4종 모두 지난 18일 장중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에서 게임·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이들 메타버스 ETF 덕을 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메타버스 ETF 4개(TIGER·KODEX·KB STAR·HANARO)가 모두 편입한 주식은 하이브,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네이버, LG이노텍, 위지웍 스튜디오 등 5종목이다.

이들 ETF가 출시된 이후 한달가량

기관투자자는 이들 종목을 모두 순매수했다.

하이브 2884억원,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77억원, 네이버 1518억원, LG이노텍 1900억원, 위지웍스튜디오 330억원을 매수했다.

반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덱스(KODEX) 철강 ETF는 지난 19일 기준 최근 한 달 새 14% 이상 하락세를 기록했다.

타이거(TIGER)200 철강소재 ETF(-13.7%), KBSTAR 200철강소재(-13.6%) 등 철강 관련 ETF도 최근 한달 수익률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팀 부장은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테마 상품 출시가 잇따르면서 종목 투자를 했던 참여자들도 ETF로 이동하는 모습 “이라며 “과거 인버스·레버리지 등 단기 방향성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중장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테마 ETF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스코건설, 레미콘 운송정보 실시간 관리

시공 품질관리 강화 나서

포스코건설이 레미콘 출하부터 타설까지 운송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시공 품질관리 강화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레미콘사·차량 관제사와 함께 레미콘 차량의 GPS와 출하 정보를 연동해 차량위치, 레미콘 규격·물량, 배합 비율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레미콘 운송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정보 관리시스템’은 각 레미콘 차량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속도와 물량을 정확하게 조절해 잔여 레미콘으로 인한 원가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건설 현장·사무실 어디서나 손쉽게 확인 가능하고,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각 차량의 레미콘 규격과 물량을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킨다.



포스코건설 관리자가 송도 F19블록 현장에서 ‘레미콘 운송 정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의 실시간 레미콘 타설현황을 모바일과 PC로 확인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이달 인천 연수구 10개 현장에 ‘레미콘 운송정보 관리시스템’을 시범 적용해서 레미콘 공급이 끊기지 않고 매회 1~3대 가량 발생하던 잔여 레미콘 없이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포스코건설은 이 시스템 기술을 특허 출원 중이며 전 현장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향후 축적된 레미콘 타설 정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하여 공정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한다.

/정연우 기자 yw964@

DL이앤씨,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AA’ 등급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DL이앤씨는 서스틴베스트에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도 A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와 함께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중 하

나로, 연 2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AA 등급부터 E등급까지 총 7단계(AA-A-BB-B-C-D-E)의 등급을 부여 중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올 하반기 코스피, 코스닥 상장회사 1004개 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환경, 사회적 책임,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현황을 평가했다.

DL이앤씨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SG 경영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ESG 전담팀을 신설했

으며, 건설사 최초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공개 협의체에도 가입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DL이앤씨는 앞으로도 안전한 사업장 구축과 고객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소통,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ESG 경영기조를 강화해 상생 및 협력, 지속가능한 기업활동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기자

대우건설,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2관왕

종합대상·인터넷 소통대상 수상

대우건설이 지난 17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제14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공감콘텐츠 종합대상과 함께 건설·아파트 브랜드부문 인터넷 소통대상도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와 ㈜서울미디어그룹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

는 행사로 디지털 효과 측정, 고객 평가 및 모니터링, 심층면접(FGI) 및 전문가 검증 등 철저 고객과의 소통에 탁월한 성과를 기록한 기업 및 정부기관을 선정,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대우건설은 2010년 제3회 시상식에서 인터넷 소통대상을 최초 수상했으며, 2012년 이래 10년 연속 건설/아파트 부문 인터넷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에는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전 부문에 걸친 경쟁한 후보들과 경합해 공감콘텐츠 최고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정연우 기자